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업 정상화 대책

2001. 6. 26

건설교통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오장섭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개최하는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제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업 정상화대책’에 대하여 발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경기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국민경제 부진 속에 건설투자가 3년째 계속하여 감소하는 등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97	'98	'99	'00
건설투자(10억 원)	89,285	80,295	72,096	69,131

해외건설 역시 현대, 대우, 동아 등 주력 건설업체의 신인도 하락과 보증발급 애로로 2000년 수주액이 1997년의 39% 수준인 54억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	'98	'99	'00	'01.5월현재
해외수주액(억불)	140	40	92	54	12

이러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와 금융경색으로 인해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수익률은 97년 이후 3년 연속 적자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7	'98	'99
매출액경상이익률(%)	-1.0	-3.1	-11.1

반면에 건설업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제조합 의무 출자제도가 폐지되는 등 건설시장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건설업체수는 증가하고 있고,

	'97	'98	'99	'00	'01.5월현재
일반건설업체수	3,900	4,208	5,155	7,978	10,309
전문건설업체수	23,925	25,793	29,704	31,823	32,990

부실업체의 진입방지와 시장기능에 의한 선별·퇴출장치가 미약하여 부실업체에 의한 건설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 작년 하반기 부실업체 실태조사 결과 2,854개사를 행정처분하고 1,117개 업체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공사실적 허위신고 조사결과 52개사가 공공공사 실적증명서를 위·변조

동아, 고려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업체가 잇따라 부도나는 등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 지난해 11. 3. 기업구조조정대상에 11개 건설업체가 포함되었고, 현재 100대 건설업체중 37개업체가 법정관리·화의 또는 워크아웃 상태

정부에서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SOC예산의 조기집행,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지원, 노후 불량주택 개발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더불어,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보증제도의 개선 등 선진금융 기법을 건설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부실건설업체 퇴출시스템 마련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 국민경제부양효과와 미래 국가경쟁력 배양효과가 큰 SOC 투자확대를 위하여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SOC예산을 매년 4~15% 증액하여 왔고,

구 분	'96	'97	'98	'99	'00	'01
SOC투자액(조원)	8.3	10.3	11.6	13.4	14.1	14.6
증가율(%)	23.1	24.1	13.3	15.1	5.0	3.9

건설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금년 1/4분기중 SOC 예산의 60%, 상반기에 80% 이상을 배정하는 등 SOC 사업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SOC예산증액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재정 제약에 따른 공공예산확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SOC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최소운영수익 보장과 매수청구권 인정 등 제도적 틀이 정비됨에 따라 대구-부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철도 등 주요민자사업을 금년들어 착공하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김해 경전철사업도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사업 등 사업성이 있는 신규 SOC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SOC 투자확대 외에 건설투자의 4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6대 지방도시 신시가지 건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비수도권 지역 주택관련 조세부담 경감 등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건설경기 침체로 붕괴위기에 처한 건설 산업을 정상화시키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어 건설산업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을 5월 2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내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8평에서 25.7평까지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 25%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18평이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주택 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 6%의 저리로 지원하는 한편,

※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MBS자금을 기금에 확대 편입하고, 제1종 국민 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5%→3%)등 대책 강구

원활한 주택건설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공급을 위하여 상반기 공급물량을 390만평에서 515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용인 동백(153천평), 평택 장당(45천평), 양산 물금(102천평) 등

이와 더불어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여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도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배제,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등(조세특례제한법 6월 국회상정중)

이러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함께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채산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사 낙찰률을 공사 규모별로 3~10% 상향조정('00.4.29)한 바 있고,

공사규모	기존 낙찰하한선	개선된 낙찰하한선	인상효과
300~1,000억	73(%)	78(%)	5(%)
100~300억	73	83	10
100억 미만	80~85	85~88	3~5

선금지급비율이 낮은 발주기관의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선금·기성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발주기관을 독려하고 있으며,

※ 토공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던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도 지급하고, 주공도 지급하지 않던 선금을 2000. 9월부터 지급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하는 특례보증제도 운영기한을 2000년 8월에서 2001년말로 연장하고, 대상업체도 중소기업에서 30대 계열회사만 제외한 전 업체로 확대 시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해외신인도 하락과 보증발급 애로를 겪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는 1999년 회복기미를 보이다가 2000년에 다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중동지역의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건설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보증 및 금융상 애로가 해소될 경우 재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있는 공사는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 대하여도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보증부담을 분담(70% : 30%)하여 보증토록 조치(2000.10)하였고,

수출입은행의 시공사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는 국내소요비용 전액과 제3국 소요비용의 일부(15%, 기자재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현지비용(시공하청비 등)도 일부 포함토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업체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공사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건설외교를 위하여 총리께서 5월중 (5.6~5.17) 중동지역을 순방하였고,

저도 동남아를 순방(5.28~6.4)하여 베트남 부총리, 싱가포르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등 주요 발주처 인사를 만나 우리 업체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해졌음을 설명하고 우리 업체의 공사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현대건설에 대해 다른 외국업체에 비해 4배의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여 현대가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합의하였으며,

우리 업체의 시공능력과 국책금융기관의 보증 등 정부의 지원시책을 설명하여 수주활동 중인 14건 44억불 공사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싱가포르 : 5건 8억불, 베트남 : 7건 29억불, 홍콩 : 2건 7억불

이에 대한 구체적 성과로서 삼성엔지니어링이 2억불 상당의 베트남 푸미 비료공장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향후 우리 건설업체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수주촉진단을 파견하고 장관지원서한을 발송하며, 발주국 유력인사 초청 등 건설외교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현재의 건설산업 위기가 건설업체의 취약한 재무구조,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 구조조정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실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무실 보유 요건을 신설하고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를 추진중이며,

※ 사무실기준 : 토건·산업설비(50m²), 토목·건축·조경(33m²), 전문(20m²)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 토목공사업(4인→5인), 건축공사업(3인→4인)

건설업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신고하도록 하고, 보증능력 확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부실업체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실업체를 상시퇴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실적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현행 10억원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도록 소규모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입찰 및 보증제도의 개선, 감리 강화 등을 통해 부실업체가 퇴출되는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과 건설업 정상화 노력으로 금년들어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건설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주(6.21) 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 등으로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2000				2001			
	1/4	2/4	3/4	4/4	1/4	2/4(P)	3/4(P)	4/4(P)
GDP증가율(%)	12.6	9.7	9.2	4.6	3.7	3.3	3.0	5.1
건설투자증가율(%)	-6.8	-4.2	-3.5	-2.5	1.4	2.9	3.5	3.9

그러나,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업을 정상화 시키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주택경기 부양으로 미분양아파트가 감소하고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건물건설에 비하여 SOC예산 증가의 둔화로 토목건설은 부진을 보이고 있고,

구 분	'99	'00 1/4	2/4	3/4	4/4	'01 1/4
토목건설증가율(%)	8.3	-4.0	-6.2	-6.1	-6.0	-1.2
건물건설증가율(%)	-27.1	-8.8	-1.5	0.2	3.2	3.4

주택경기 회복세도 아직은 주택건설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0. 1월	2월	3월	4월
주택건설증가율(%)	-5.6	-17.2	-34.6	-22.2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건설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내년도 SOC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주택건설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PQ 변별력 강화, 이행보증제 정착, 공사감리 강화 등 시장기능에 의한 선별·퇴출장치를 통해 우수한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과도한 업역제한 폐지, CM 활성화, 건설산업DB 구축,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진화된 제도적 틀을 도입하여 시행하기는 쉬우나,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이를 정착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기 마련입니다만,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산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이며,

건설업체들도 급박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엔지니어링 능력 배양 등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종전의 외형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내실있는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을 바로잡고 이끌어가는 데 탁월한 식견과 전문지식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